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고전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같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가 지적했듯이 근대사회가 독선의 늪에서 헤어나게 하는 데 흄이 이바지한 바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확신은 불신을 낳는다

“나는 약한 인간의 본성이 허용하는 한, 이 완전무결하게 현명하고 고결한 사람의 사상에 가깝게 접근하고자 애썼다.” 흄은 회의론자였다. 그는 인간의 관념은 인상(impressions)으로부터 출발하며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확실히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흄의 회의론은 미국 신문이 오랜 정파주의(政黨主義)에서 빠져 나와 사실(事實)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이분적 바탕을 제공했다. 기자가 직접 사건을 보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 주관의 개입이 끼어든다. 따라서 사건을 기사를 작성하는 데 주관성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주관성으로 각색한 사실은 이미 사실이 아니다.

그럼 언론은 어떻게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할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한 미국 언론의 답이 객관주의 보도원칙이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사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양자의 이야기를 제3자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보도 내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 궁극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기자가 아니라 독자가 내리게 해야 한다.

회의는 믿음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지

않는, 회의의 변증법은 몹소 보여준 셈이다.

우리 언론에 회의는 없다. 확고한 신념이 가득하다. 이 확신이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일까?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확신에 찬 언론은 생각을 달리하는 독자에게는 그 매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

확신에 찬 오늘날의 언론인들에게 한결을 물러나 조용히 호흡을 맑이를 권하고 싶다. 확신에 찬 기자가 아니라 회의하고 또 회의하는 기자가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회의하는 기자가 많은 언론이 내일을 얻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 있는 신문보다는 믿음만한 신문을 갈구하는 독자가 부쩍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뿐이다. 우리는 친구끼리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10분이 못 가 서로 얼굴을 붉힌다. 확신과 확신이 마주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확신에 대해 회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 회의를 통해 상대와 공존할 수 있는 영역, 협상 가능한 영역을 찾아야 한다.

(고려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아차 ‘2년 무과업’ 지역경제 활로 되기를

기아차가 올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했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무과업 타결이다. 지난 2009년 ‘20년 연속 과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과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기아차의 2년 연속 무과업은 ‘상생 노사문화’라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7일 상경례로 시작된 올 임협을 역대 최단기간인 16일 만에 타결했다. 이는 노사 모두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탐색전을 없애고 곧바로 집중 교섭에 들어가 양측이 상호 의사로 적극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노사의 윈-윈 전략이 이른 쾌거를 만들 수 있었다.

지역민이 기아차 2년 연속 무과업을 반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아차 노사는 이번 임협 타결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이거나 시야가 열린다. 광주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지역제품 소비 등 경제적 측면은 물론 각종 지역현안 지원과 같은 사회적 공헌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기아차가 지역민의 성원에 비해 지역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공장은 광주시 생산부문의 3분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우리가 기아차 임협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시 생산부문의 3분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기아차의 과업은 지역경제에

대입 혼란 물고 온 나이스 오류 어이없다

고급생 2만 명의 1학기 내신 석차와 등급이 뒤바뀌어 통보됐다. 수시모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올해 새로 도입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한 내신 점수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다. 특히 특정 과에서 내신 등급이 떨어져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소송을 낼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고3 학부모 출제위원 사태가 발생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다. 그 파문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규모 성적처리 오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한치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대입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교육당국은 시스템 오류 책임과 원인을 밝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교과부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각각 고3 수험생 210명, 200여 명의 성적 처리가 잘못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012학년도 대입 수시 입학을 준비해 온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나이스 운영방식을 포함한 대입 관리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손질을 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뒤통수 치는 것으로 앞으로 어떤 더 큰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시스템 오류 책임과 원인을 밝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교과부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나이스 운영방식을 포함한 대입 관리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손질을 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뒤통수 치는 것으로 앞으로 어떤 더 큰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無等鼓

옛그제 연이를 펼쳐진 우리나라 야구계의 ‘레전드’(전설) 퍼레이드가 눈길을 모았다.

이만수 SK 2군 감독(포수), ‘무등산 폭격기’ 선동원 전 삼성 감독(투수) 등 레전드 올스타 10명은 잠실밭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팬들을 만났다.

첫 번째 레전드는 지난 22일 저녁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전개됐다. 70~80년대 고교야구 라이벌이었던 군산상고-경남고 간 동문 대결이 벌어져 팬들을 추어 속으로 안내했다.

양준혁 SBS ESPN 해설위원(좌익수), 장효석 삼성 2군 감독(중견수), 이순철 MBC 스포츠클러스 해설위원(우익수), 장종훈 한화 코치(1루수)와 박정태 롯데 코치(2루수), 한대화 한화 감독(3루수), 김재박 한 국 야구 위원 회(KBO) 경기운영위원(유격수), 김기태 LG 2군 감독(지명타자)도 레전드 올스타에 합류했다. 한국 프로 야구가 30년이 흐르면서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레전드



김봉연, 김성환, 조계현, 김일권 등등한 시대를 품어왔던 군산상고 출신 스타플레이어들이 중후한 몸매로 다시 그라운드에서 나타난 올스타들의 시선으로 사로잡았다. 맞수 경남고에서도 감독을 맡은 허구연과 김용희를 비롯해 즐비한 스타들이 모습을 보였다. 이날 추억의 명勝負는 초반 뒤지던 군산상고가 7대5로 뒤이어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값을 증명했다.

김봉연, 김성환, 조계현, 김일권 등등한 시대를 품어왔던 군산상고 출신 스타플레이어들이 중후한 몸매로 다시 그라운드에서 나타난 올스타들의 시선으로 사로잡았다. 맞수 경남고에서도 감독을 맡은 허구연과 김용희를 비롯해 즐비한 스타들이 모습을 보였다. 이날 추억의 명勝負는 초반 뒤지던 군산상고가 7대5로 뒤이어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값을 증명했다.

끝마루 다음날 두 번째 레전드가 이어졌다. 프로야구 출범 30주년을 맞아 팬과 언론, 야구인의 투표를 뽑힌 레전드 올스타 10명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 섰다.

팬과 언론, 야구인의 투표를 뽑힌 레전드 올스타 10명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 섰다.

팬과 언론, 야구인의 투표를 뽑힌 레전드 올스타 10명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 섰다.

팬과 언론, 야구인의 투표를 뽑힌 레전드 올스타 10명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 섰다.

팬과 언론, 야구인의 투표를 뽑힌 레전드 올스타 10명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 섰다.

팬과 언론, 야구인의 투표를 뽑힌 레전드 올스타 10명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 섰다.

팬과 언론, 야구인의 투표를 뽑힌 레전드 올스타 10명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 섰다.

Table with 2 columns: Left side contains '光 州 日 報' (Gwangju Ilbo) contact info and address. Right side contains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 and address.

NGO 칼럼



최선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14일 오는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학교까지 이어진 것이다.

2012년 주 5일제 수업, 대책은

5일 수업준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고 모든 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 특히 전남과 전북 농촌이 격정적이다. 도시는 많은 청소년기관과 사회적 기관이 있어 체험프로그램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곳이 많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토요 방과 후 교실’과 ‘토요 돌봄교실’을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모든 예산을 지역교육청과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주 5일제에 의한 ‘토요 방과 후·돌봄교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발전이 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기에 몰리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토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토요 방과 후 교실’과 ‘토요 돌봄교실’을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모든 예산을 지역교육청과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주 5일제에 의한 ‘토요 방과 후·돌봄교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발전이 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기에 몰리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토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과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토요일 방과 후와 돌봄교실은 국가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되 수익자 부담을 없애거나 낮은 금액으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주 5일제 수업으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거나 또 다른 사교육시장이 만들어져 아이들이 국영수 중심의 주입식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토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교육부모회 광주 교육부장〉

기고



양봉한

주말이면 가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전통시장을 찾는다. 시장에서 생선과 채소 등을 사기 위해 상인들에게 물건의 원산지를 묻고, 싱싱한지 확인하면서 살 물건을 고른 후 가격 흥정을 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람 사는 재미와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통시장 갑시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최근에는 SSM(가입형 슈퍼마켓)이라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등장하고, 전통시장이 변화된 소비패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점차 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그저 낡고 불편한 곳으로만 인식되면서 손님이 줄고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있지만 아직 대형마트에 견주기에선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상인이 친절해도 손님이 찾아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통시장에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행히,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장관 관계장관회의 때 매일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이 올해 경제정책과제로 채택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매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추진하고 있다.

재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은 매일 1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가정의 생필품도 구입하고, 기관의 식자재도 구입하기로 했다. 이왕이면 단체 회식도 전통시장에서 하기로 했다.

시장상인회에서도 위생적인 식자재와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상인의 자조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병행해 문화관광형시장 관광투어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시장투어에 참여하면,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고 지역특산물도 현장에서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 또 관광비용 또한 매우 저렴하다.

정부의 캠페인에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합쳐진다면, 머지않아 전통시장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장을 보는 손님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오후가 되면 주부들이 동네에 있는 골목상점이나 전통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했다. 전통시장이 시시콜콜한 일상과 삶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2005년부터는 이와 더불어 경영현대화 사업과 상인들의 의식개선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었다.

경영현대화를 위해 상인들에게 친절과 상품진열방법을 교육하고 세일 및 푸른테 실시 등 선진 마케팅 기법도 전수하고 있다. 지난 시절개선 이후 매출이 증가하고 빈점포율이 감소하는 등 부분적 성과가 나타나고는

경쟁력을 되찾을 것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장을 보는 손님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이와 병행해 문화관광형시장 관광투어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시장투어에 참여하면,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고 지역특산물도 현장에서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 또 관광비용 또한 매우 저렴하다.

정부의 캠페인에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합쳐진다면, 머지않아 전통시장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장을 보는 손님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대학생 계절학기, 수강료 비싸고 학사관리 허술

대학에는 방학기간 동안 계절학기란 제도가 있다. 학생들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조기졸업을 위해 방학 동안 수강하는 제도로 상당수의 학생이 학점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담당 교수의 적당한 수고비 정도만 받았으면 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설강좌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개 단순 교양 과목이나 계절 기초과목이 전부다. 더욱 많은 과목들이 개설돼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점당 보통 5~9만 원 사이다. 9만 원의 경우 3학점짜리 2과목만 들어도 60여 만 원에 달하게 된다.

계절학기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수강과목을 들을 기회가 적고 강의시간도 일반학과와 비교할 때 짧은 것이다.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는 비싼 등록금과 함께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이나 듣는 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